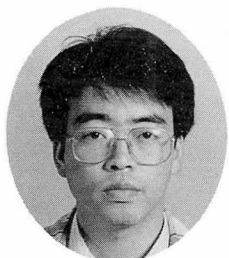


냉동 돼지고기 수입 이렇게 대처하자(총론)



이재춘
(한별 피그 클리닉 원장)

냉전 시대의 종식 이후 WTO의 발족으로 세계는 또다시 새로운 전쟁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른바 ‘무역전쟁’이라 표현되는 이 상황은 국내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할 정도로 그 충격 여파가 밀어닥치고 있다. 즉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냉엄한 현실이 도래함에 있어 각 산업분야에서는 저마다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구책이 한창인 것이다.

우리 양돈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미 94년도에 냉동 돼지고기가 쿼터량인 1만4천톤에다 추가로 2만톤의 더 들어온 터이니 95년도에는 최소한 4만톤~5만톤 정도는 기본적으로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내 양돈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인 부분의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농장에서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간 여러지면을 통해 업계 전문가 분들의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방안들이 심도있게 거론되었고 하여 본고에서는 최근에 농장을 방문하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느꼈던 점을 위주로 소개하기로 한다.

1. 양돈경영에 대한 재 인식이 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양돈업은 생산성을 크게 거론하지 않고서도 사육규모면에서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다 보니 자연 양돈경영 부분에 대한 관심도와 전문성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일부 앞서가는 농장의 경우 철저한 경영관리 및 생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생산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었고 또한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타농장에 비해 월등한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 한데 이러한 농장조차도 수입개방에 직면해서는 긴장을 하고 있으며 농장의 체질개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국내 대부분의 양돈장에서 수입개방이라는 현실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무언가 준비는 해야 할텐데...”, “사육규모를 늘려볼까?”,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마음먹고 돼지막에 붙어 있어야 겠다” 등등 관심은 보이고 있으나 방향 설정이 막연하기만 하다. 양돈경영의 합리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아직도 이러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농장이 많다는 것은 우리 양돈업계의 발걸음이 시대의 흐름에 너무나 둔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1) 먼저 시각을 넓혀야 한다.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달로 세계가 이웃화 되었고 수많은 신기술,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 농장에서 한 두가지의 노력을 하고 있을때 다른 농장(외국의 농장포함)에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양돈업의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들과 나는 현재 경쟁이 가능한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2) 기록관리는 양돈경영의 출발점

기록관리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이제는 비교적 널리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록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농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며 또한 기록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기록을 위한 기록으로 끝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모든 경영의 출발은 기록관리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즉 기록을 함으로써 생산계획의 수립이 가능해 지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히 찾아낼 수 있으며 또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으로 작업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어 결국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생산원가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서 생산목표치에 실제 성적이 얼마나 접근

해 있는가에 따라 작업의욕을 높일 수도 있으며 목표달성시에 얻을 수 있는 큰 만족감은 농장경영의 활력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듯 기록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그동안 국내 양돈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양돈경영상의 여러 미비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 기록을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번거롭고 힘들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분간 감내를 하고 꾸준히 습관화 하면 사료주고 교배시키고 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처럼 몸에 베이게 될 것이다. 기록없이 성장한 산업은 없다.

3) 기록관리는 전산화로

양돈 기록관리는 크게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과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처리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떠한 방법이 좋은냐는 농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전업규모 이상의 농장에서 전산처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사육규모가 증가하고 관리인원은 점차 감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결코 많은 시간을 장부정리에 할애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산화하는 목적이 최소한의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자료를 얻

을 수 있다는데 있고 보면 그 효율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4) 주간단위 관리체계의 정착

양돈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흔히 바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용접도 해야하고, 새끼도 받아야 하고, 백신접종, 청소, 소독, 교배, 돼지이동, 정화조작업 등등 그야말로 일년 내내 거의 쉴틈이 없다고 한다. 물론 바쁘게 열성적으로 관리에 임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관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 현 시대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무작정 열심히 일만하는 사람이 대접받던 시대와는 상황이 다르다.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농장에서 필수적으로 해야할 기본업무가 날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늘어나는 업무를 단순히 육체적 노동만으로 처리해가기에는 시간도 턱없이 부족할 뿐 더러 몸도 말을 듣지 않게된다. 그래서 최근들어 바쁘다는 말이 더 자주 나오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농장 관

리기법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농장에서든 시테크 개념, 즉 시간관리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 시간이다. 작업시간 동안 비생산적인 부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있는가, 실제 생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했는가 등을 점검하여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단위 시간당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경영기법이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로 작업의 집약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일곱 가지의 작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매일매일 이 일곱 가지 일을 모두 반복하면서 일주일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하루에 한 가지 작업만을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하여 일주일을 보낼 것이냐 했을 때 당연히 후자쪽의 작업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가 있다.

셋째로 작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다. 스톨사의 내부공사를 속히 끝내고자 공사현장에 매달리다 보니 몸이 들

이 아닌 관계로 분만사관리, 재발점검, 백신접종 등 기본관리가 부실해진다. 공사는 어쨌든 제때 끝내어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때부터 돼지들이 속을 썩이기 시작한다. 공태돈이 속출하고 발정도 제때에 오지 않는다. 별문제 없던 질병까지도 발생이 되어 폐사 및 성장 정체현상이 두드러진다. 뜻하지 않게 모든의 도태율이 증가하고 약품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결국 제 페이스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남는 것은 경영 적자와와 심적, 육체적 고생 뿐이다.

이러한 경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돈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농장에서 작업우선 순위중 첫번째로 꼽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돼지를 잘 관리하는 일이다. 기본적인 사양관리가 이루어진 연후에 시간을 할애하여 공사일도 보고 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주업인 돼지 돌보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는다. 공사 인력이 부족하면 차라리 인부 몇사람 더 고용하는 것이 건전한 양돈경영의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이러한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의 흐름을 주간단위로 끊

특집/생동 돼지고기 수입 이렇게 대처하자(총론)

<표1> 주간관리 표준화 작업

○○농장

부서 요일	분만사	번식사	자돈사	육성사	비육사	기타
월	분만대기 전입 사료배합 철분 1, 2차	임신돈 전출 종부적기 관장 웅돈 특수관리	위축돈선별 격리치료 이용자돈 전출 수세	위축돈선별 격리치료 자돈 전입 사료배합	판매계획 수립 위축돈선별 특별관리	소독
화	모돈백신 PPV(17일령) 자돈백신 ARPH(21일령)	교배의 날(AI) 재발점검(1, 2차)	수세	육성돈 전출 수세	육성돈 전입	차재 구입
수	유도 분만제 주사 자돈 이각 주입	교배(AI) 교배돈 정리	백신 HC, ARPH (45일령)	수세		돈사 보수
목	분만의 날 이유 자돈전출, 수세	이유모돈 전입 웅돈 포피세척 임신진단	이용자돈 전입		판매 수세	
금	수세 소독 사료배합	백신(ARPH, TGE) 자동급이 사료량조절 모든 마디컨디션 체크	구충 사료배합		판매 수세	소독 한별 방문
토	한 주 미비사항 실시 대청소					
일	기본관리					

<표2> 국가별 모돈 생산성 비교(PSY : 모돈당 연간 이유 자돈수)

구	분	미 국	캐 나 다	영 국	일본 GPF	네덜란드H사	축협조사사	도 드 램	한국평균
P	S Y	19.21	19.24	21.65	21.81	21.90	18.50	20.60	16.00
모돈두수(평균)		355	161	192	138	160	20	155	약 10두
비	고	92년 205농가	92년 106농가	92년 59농가	92년 66농가	92년 968농가	92년 90농가	93년 39농장	추정

어서 관리하는 주간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한 상태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관리 방법이 소개되고 있었으나 그 보급속도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늦는 편이다. 물론 시설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하겠지만 일단은 시작해 보자. 실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곧 느끼게 될 것이다.(<표 1> 참조)

5) 경영의 일차 목표는 생산성 향상

농장간 번식생산성의 비교는 일반적으로 P.S.Y(모돈 복당 연간 이용자돈수)를 기준으로 한다. 국내 평균을 대략 P.S.Y 16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는 외국 주요국가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치이다(표2). 물론 국내에서도 전산관리로 성적이 분석 집계되고 있는 도드람회원중 성적이 우수한 상위농가들은 이미 선진양돈국가들과 어깨를 겨룰만큼의 성적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덴마크와 같은 나라의 돈육생산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낮다고 한다. 우리가 돈육 생산비를 이러한 국가들 수준으로 맞추기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최소한 생산성 만큼은 노력 여하에 따라 앞설 수도 있지 않겠는가?

P.S.Y 16일때 어느 정도의 생산비가 소요되는 가를 대략 계산해 보면 비육돈 두당(105kg, 지육을 68% 기준) 약 ₩135,000 정도 산출이 된다.(시중시세 근당 771원, 지육 kg당 1,890원에 해당) 지육 kg당 2,000원

기준 할때 P.S.Y 16에서 1두의 성적향상의 가치는 근당 34원, 지육 kg당 84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P.S.Y 16에서 20으로 향상이 되었을 때의 수익 변화를 쉽게 계산해 보면 근당 136원을 더 받고 판매하는 격이 된다. 즉 시세가 800원 일때 936원을 받고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성 향상은 엄청난 원가 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이니 만큼 농장경영의 중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6) 농장인력 관리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삼십대의 젊은층이 부족하다. 양돈업 종사자들의 연령은 자꾸만 높아간다. 전문가는 고사하고 막일 할 사람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 직원의 농장간 이동이 잦다. 현재 대부분의 양돈장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인력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농장의 생산성 및 존폐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왜 이와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물론 3D 현상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농장경영주 본인들의 책임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농장 인력관리에 대

한 대처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직원에 대한 근무 의욕 향상

양돈장의 일상 반복되는 업무를 목표없이 지속하게 되면 아무리 의욕적인 사람일지라도 얼마 못가서 권태감을 느끼고 만다. 특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 경우는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해 더욱 빨리 싫증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항상 부여해 주어 직원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장성적 향상이 자기 자신에도 득이 됨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 근무환경 개선

불결하고 다소 폐쇄적인 농장의 근무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작업이 편리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장의 모든 일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만큼 타직종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이 지속되어서는 이직률이 높아짐은 물론 생산성 향상도 요원하게 된다.

셋째 : 시설의 자동화

인력문제의 해결이나 생산효율 증대 차원에서 볼때 기존 재래식 시설로는 한계가 있게 되므로 사료급이 및 제분작업 정도는 필히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 젊은 인력의 양성

양돈업이 당대에서 끝나고야 말 사업은 아니므로 젊은층에서 양돈업으로의 신규 참여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돈이 전망있는 사업이라는 자신감을 양돈가들이 먼저 가져야 하며 농업계 학교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실습기회를 늘리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2.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자.

국내의 양돈질병은 사육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문제시되고 있으며 그 피해 액수도 총생산의 2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실정에 와 있다. 지금까지 질병에 대해 너무 무사안일 하게 대처를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왜 질병에 대해 이렇게 소홀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지금까지 돼지고기의 수요충당을 수입 않고 전적으로 국내 생산물량에만 의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바꾸어 말하면 TGE와 같은 질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해 피해를 입어도 그 피해상황은 곧 돈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질병 피해로 인해 돼지고기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수입으로 언제든 지 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가격상승을 기대하기가 힘들게 되므로 한번 피해입은 농장은 회복하기 힘든 큰 경영압박을 받게 된다.

이렇듯 양돈에 있어 질병문제는 경영측면에서 과거보다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방역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질병에 대한 대처는 치료개념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집중 다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소독, 환경위생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질병발생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올바른 방역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기적인 질병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양돈 수의 전문업체들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질병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예방 밖에는 없다.

3. 위생적인 돈육 생산

수입돈육과 국산돈육의 위생적 수준을 비교한 자료를 아직까지 필자는 본적이 없다. 그래서 그 비교자료가 지금 발표된

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끔해 본다.

만약에 국산돈육의 위생수준이 낮다는 결과가 발표된다면? 그것도 국내시장 잠식목적으로 외국에서 먼저 발표가 된다면...? 그 이후 벌어질 상황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 농산물이 좋네, 신토불이 어찌고... 하며 홍보하던 것이 모두 거짓이 되어 버리는 순간, 예민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곧 국산 돼지고기 불매운동 등이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95년 3월 1일부터 육류내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정부 발표가 있었다. 위생적인 고기만을 유통하겠다는, 그래서 국민보건 향상 및 수입고기의 시장잠식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양돈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잔류 규제물질이 검출될 경우 폐기처분 되기 때문이다. 협조 사항은 젓먹이사료를 장기간 급여하지 않고 비육후기 처리를 하며 30kg 이후로는 약제사용을 안하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관리상의 변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즉 백신, 소독, 환경위생 등에 더욱 중점을 두어 관리해야 한다. 모든 양돈장에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

행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희소식이 들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수입돈육과 국산돈육의 위생수준에 대한 비교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산돈육은 100%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나 수입돈육은 다수가 불합격 판정을 받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돈육 수출국에 이의를 제기하면 당분간 돈육수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입개방 이후 국내 양돈업에는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어려움 또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국내 양돈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양돈경영에 대한 인식 전환, 질병피해의 최소화, 위생적인 돈육생산 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서 환경문제, 즉 축산분뇨와 악취문제 등이 선결과제로 남아있다.

여기저기서 제2의 창업업을 외치며 몸부림치는 기업들이 보인다. 바로 현 시점에서 양돈업도 제2의 창업 정신이 필요하다. 새로 양돈을 시작하는 의욕적인 기분으로 활발히 연구하고 실천하여 하루 빨리 강한 농장이 되어야 한다. 